

# 제1회 경기도 지역환경현안 이슈진단 토론회

경기북부 지역 고품연료제품(SRF,Bio-SRF) 사용시설 갈등 해소방안은 있는가?

## ○ 목적 및 목표

- 경기북부 주요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 주요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 도출
- 도출된 과제 해결을 위한 센터의 역할 모색

## ○ 사업 내용 및 결과

- 행사명: 제1회 경기도 지역환경현안 이슈 진단 토론회
- 일 시: 2024. 8.28.(수) 14:00~16:30
- 장 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종합지원센터 1층 소강당(포천시 자작로 155)
- 주최/주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 참석대상: 지자체 공무원, 시민환경단체, 경기도민, 대학, 연구기관, 고품연료제품 사용·제조업체 등 27명 참석
- 주요의제: 경기 북부의 주요쟁점 환경 현안 파악 및 토론
- 주요내용

<발제1> 경기북부지역 주요쟁점 환경현안(정연훈 대표/에코인사이트)

<발제2> 국내 SRF 소각시설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신동철/대진대학교)

<지정·자유토론> 경기북부 지역 고품연료제품(SRF,Bio-SRF) 사용시설 갈등 해소방안은 있는가?

- ① 윤균덕 박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① 김성길 사무국장(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 ① 박상원 대표(천일에너지), ① 조영민 교수(경희대학교), ① 신동철 교수(대진대학교)
- ① 김국진 전무(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① 정연훈 대표(에코인사이트)



토론(지정, 참석자)



주제발표(정연훈)



주제발표(신동철)

## ○ 사업성과 활용 계획

- 토론회를 통해 파악된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환경현안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센터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경기북부지역의 전반적인 환경현안을 파악하여 환경문제 해결의 지역균형발전 도모
- 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경기북부 지자체 환경관련 부서에 송부하여 정책에 활용도록 함
- 언론보도: 경인일보 등

## □ 발표 주요내용

### <1> 정연훈 대표(에코인사이트)\_발제

-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환경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수요자의 요구와 환경영향 문제를 공급자가 가진 과학적 도구를 통해 탐색, 진단, 예측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정책/행정적 방안을 수요자에게 되돌려 주는 순환주기 체계구축⇒환경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환경거버넌스 실현

###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환경현안)

1. 방류수 색도(한탄강유역 염색,피혁업종 배출 폐수)
2. 방류수 특정수질유해물질(안티몬 등)
3. 섬유공장 텐타시설의 백연
4. 악취(양주,동두천,연천,포천지역 축산농가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5. 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
6. 아스콘 제조시설
7. 고형연료 사용시설(SRF)
8. 열회수시설 설치업체 영업정지 등 처분

### <2> 신동철 교수(대진대학교)\_발제

### (국내 SRF 소각시설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 SRF의 필요성
- 경기도 SRF 시설 현황
- 국내 SRF 소각시설의 문제점 분석
  - SRF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이점 감소 및 유해성 문제 대두
  - 법적 구분 모호, 복잡한 허가절차로 인한 문제 발생,
  - 10MW미만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인가없이 신고만
  - 시설 건축에 비해 모호한 기준 및 미흡한 규제
  - SRF 소각시설의 유해성 문제로 심각한 민원 발생

## ○ 제도 개선 방안

-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원활한 의견 소통
- 배출기준 강화를 통한 유해성 제거 및 환경인식 제고
- 고품질연료제품 품질등급제도 강화
- 환경영향평가 절차 의무화 및 입지규제(현재 1만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시설은 영향평가대상 제외로 사실상 모든 SRF 소각시설은 제외)

## □ 주요 토론내용

### ○ 윤균덕 박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 SRF, BIO-SRF 소각과 생활폐기물 소각은 관련법이 달라 구분되어야 하지만 배출오염물질관리는 별차이가 없다고 봄
-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이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데 배출 허용기준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측정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SRF, BIO-SRF 소각과 생활폐기물 소각은 구분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SRF가 많이 보급되는 이유 중 하나로 특정지역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할 경우 원료를 외부에서 유입하여 소각하여 에너지로 사용
  - 소각장은 지역내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자체 소각하여 에너지 생산소비
  - SRF는 소각장보다 인허가가 쉽고(특히 중소형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관(지자체)주도로 이루어지고, SRF는 주로 민간부분에서 추진됨에 따라 사전에 주민의견 반영, 협의 등 주민 수용성 제고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또한 SRF는 폐기물 재활용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큼
  - 문제는 대부분 중소형 SRF 사용시설인데, 사실 법에 따라 보급되고 설치가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법 규정내에서 운영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핵심. 환경문제를 논할 때 다이옥신 등의 유해성만 따질게 아니라 법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감시, 지도단속, 기술지원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와 불신이 해소.
  - 감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다이옥신이나 감지할 수 있는 백연,냄새,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SRF 소각시설등은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를 구축해

같이 모니터링을 해가면 갈등해소나 문제해결이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것임.

- 좋은 사례로 시흥의 시화반월지역의 악취관리문제 해결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해 활동하고 있음.
- SRF 사용시설은 대규모 시설의 인허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중소형시설은 인허가에 문제없이 설치운영 중임
- 우선 사업주는 법과 규정에 맞게 원료반입 및 성분조사, 소각시설 적정운영 등을 하고 지역주민들은 거버넌스를 구축해 감시 감독 활동 전개
- 사업주는 쉽게 동참하기 어렵겠지만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필요하고, 이런 인식변화는 사업주의 인식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봄.

- 다이옥신 실시간 모니터링이 비용에 관계없이 가능한가요?(좌장질의)

- 실시간 모니터링(시료 채취를 실시간)은 서울 강남, 보통 서울 자원회수시설\_소각시설에서만 실시중임.
  - 현재 수도권도 그렇고 생활폐기물 소각은 전국에 많이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다이옥신의 주변의 영향을 안받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폐기물소각과 관련하여 방지시설만 잘 운영한다면 SRF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다고 봐도 됨.
  - 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때는 다이옥신 자체가 이슈가 되어 있지 않다가 이슈가 된 시점에 폐기물 관리법에서 다이옥신을 점검하기 위한 방지시설운영조건을 강화하여 적정 운전되고 있음
  - 법적인 조건으로 운전을 하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를 통해 다이옥신을 적게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다이옥신 자체를 문제삼으면 소각장이던 SRF던 연소시키는 모든 것들은 이 국내에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 폐기물 매립으로 가야되는데 폐기물 매립도 문제잖아요
- 조금전에서 말씀드렸듯이 SRF, BIO-SRF 소각과 생활폐기물 소각은 똑같고요. 인허가 사항과 법만 조금 다른 상황
- 현재의 경기북부 현안 환경문제인데 SRF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는 사실 다른 문제거든요. 이쪽 지역에서는 SRF제조시설, 사용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 일수도 있는데 어차피 입지해서 가동중인 시설인데 지금 있는 시설을 얼마나 환경적으로 관리할거냐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봄

- 이제 시설을 법적인 규정대로 사용하도록 유도 하는거 어쨌든 법적인 환경 설비를 사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덜 들도록 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고 기술을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결국 환경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봄
- 인허가가 쉬운 지역에 환경업체가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자체하고 주민들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허가를 내줄건가 어떻게 정당한가를 합의해서 하고 여기 어떤 오염에 대한 총량이 어느정도 이상은 안되겠다 싶으면 그런것들을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상이하고 결정하는 줌 같이 논의가 되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 김성길 사무국장(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 SRF 폐기물의 문제와 BIO-SRF에 대한 우려

1. 환경정의

1)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어긋남

- 경기북부지역 SRF 사용시설 리스트(2020년 12월 기준)
  - 동두천시 : 대제에너지-b, (주)더브류제이, (주)정인텍스타일,
  - 파주시 : LCD환경안전협의회, 린텍스기업주식회사
  - 양주시 : (주)에니테크 상수지점(성/비), 세계섬유
  - 포천시 : (주)이원브이엘, (주)이원브이엘, 한미염공-성, (주)경향섬유, 에스제이섬유(주), (주)대원제지, (주)대원( 구. (주)유한), (주)천일에너지-B, ES산업 (구 미산)
  - 연천군: 보광에너지 (CS에너지 2023년)
  - 경기남부지역 5곳 평택 2, 안산1, 시흥2
  - 소각량: 보광에너지 , CS에너지

<2022년 연천지역 폐기물 발생현황>

	인구		발생량 (톤/년)	1인당1일발 생량(kg)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
연천군	42,062	생활(가정)	13,612.2	0.8866	35.5%	64.4%	0.1%	0.0%
		사업장 비배출시설	11,371.7	0.7407	80.7%	10.3%	8.3%	0.8%
		계	24,983.9	1.6273	56.1%	39.7%	3.8%	0.3%

출처 : 전국폐기물발생및 처리현황 2022, 환경부

## 2) 국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기업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표 1> 국가별 SRF 명칭 및 도입 배경

	EU	일본	한국
명칭	RDF/SRF	RDF/RPF	SRF
법적 지위	폐기물	폐기물/재활용 제품	재활용 제품
도입 배경 (의결적)	매립금지법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문제	환경자족임재활용 (EPR) 제도 도입
성형어부	비성형/성형	성형만 인정	비성형/성형
접근성	공공	공공	민간(일부공공 포함)

- 국내외 IP 분석보고서 SRF산업 현황: EU · 일본 · 한국 중심으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내 : Solid Refuse Fuel 쓰레기 연료
  - 유럽 : Solid Recovered Fuel 회복된 연료

### 3)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 없음

- SRF는 연료이기에 폐촉법 등에 명시된 주민위원회 등이 법적 사항이 아니다.
- 그러나 SRF 제조사용 시설은 엄연한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SRF 시설이 계획 단계부터 시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수용성이 충족되었을 때 시설을 짓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위원회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 명절이라고 닭 한 마리, 갈비 한짝을 지역 유력자들에게 돌리는 것만이 지역 상생이 아니다.

## 2. BIO-SRF 사용시설에 대한 오해

- SRF와 BIO-SRF 연소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배출특성 및 유해성
-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따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배출특성 및 유해성평가

※허선화, 임승영, 강대일, 김대곤, 전기준, 장기원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33권 제 4호 2017

	SRF	BIO-SRF	차이
배출계수 mg/kg	1.631	1.852	13.5%
배출 평균농도 $\mu\text{g}/\text{m}^3$	93.462	106.235	13.7%
BaP 환산독성 $\mu\text{g}/\text{m}^3$	27.00	31.52	16.7%

- BIO\_SRF 사용시설의 미흡한 배출 방지 시설로 인해 대기오염, 주민피해, 민원발생 많음,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대형폐기물 소각 시도 상위법인 순

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 위반임에도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소각계획 세우는 중임

※ 의정부시(15.6톤/일), 고양시(37.14톤/일)

제3조(기본원칙)

4. 발생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 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3. 결 론

- 자원순환 방법으로는 재사용-물질재활용, 물질전환, 에너지회수 등의 방법이 있다.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원칙에도 나오듯이 에너지 회수는 재활용 단계 최후의 방법이다.

- 그 과정에서 많은 민원도 나오고 님비 논쟁도 나온다.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쓰레기 소각장)의 경우도 광주시의 폐기물을 나주에서 태운다는 것이 문제다. 남이 버린 쓰레기를 우리집 뒷마당에서 안태우겠다는 것이 님비인지, 내가 버린 쓰레기를 다른 집 마당에서 태우라고 하는 것이 님비인지 명확히 해야한다.

- 인구 4만2천명이 사는 연천에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고품폐기물연료라는 이름으로 태우고 사람들은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 SRF 든 BIO-SRF 든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형식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과 비닐에서 등유를 뽑아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민간 주도형이다.

- 소각, 물질 전환 등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재활용은 오염과 각종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그래서 일까 유럽에서는 SRF 소각시설을 공공에서 관리한다.

-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SRF 시설은 제한되어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켜서 그 시군에서 필요한 열병합 시설이든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처리과정의 주체는 공공과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

## ○ 박상원 대표(천일에너지)

- 자료를 준비한 게 아니라 워낙 광범위한 문제여서 지금 사업체는 혼자인 거 같아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바이오 SRF, 폐목재 시장을 전국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에 원래 설립취지가 가구 공장이 한 800개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폐목재 처리가 그 당시 2011년도에 허가를 했는데 참고로 제가 경기도 막차입니다.
- 일 300톤에 폐목재를 태워서 시간당 70톤을 생산하는 설비인데 그 당시 폐목재 처리비가 비쌌고 그래서 가구 연합회죠?...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양문 염색단지 안에 43개 염색업체가 병커C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가 상승때라 기름값도 비쌌고, 그리고 그 염색업체들이 영세해서 후단 설비를 잘 잡지 못했고, 그리고 또 저는 어떤 염색연합회와 가구 연합회가 포천시,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맺고 하는 바람에 일종의 SRF, 폐비닐을 태우는 사용시설보다는 인허가 과정도 좀 순조로웠고 설립 건축과정도 순조롭게 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 첫 번째는 폐목재 수급이 어려웠고 애를 먹었고, 둘째는 아이러니하게도 폐목재 불법소각을 양포동에 포진되어 있는 염색업체들이 무분별하게 해서 피해를 봤었고, 제가 지금 10년 정도 공장을 운영했는데 매년 10억씩 적자입니다.
- 아까 뭐 돈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다 적자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적자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는 염색업 경기가 많이 죽어서 칩이 안팔렸고요. 폐목재가 RE100, ESG 바람을 타는 바람에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결국 유연탄을 대체하는 석탄 대신 폐목재 태우는 게 석탄보다 낫지 않냐. 그 예가 LG화학 여수 공장이 원래 석탄으로 스팀을 생산하다가 RE100으로 덜컥 걸려서 폐목재를 태우는 발전소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5년동안 폐목재를 잘 수급해서 제가 태우는 것도 태우는 거지만 공급도 좋겠다 싶어서 공급으로 전환해서 지금 연간 50만톤 어찌보면 바이오 회사로 제조자이자 사용자가 되어 파쇄공장과 소각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 SRF 업계와 SRF 업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오 SRF업계는 우드칩 품귀로 인해서 폐목재를 쉽게 얘기하면 팔면 돈인데 제가 태워야 되니 동두천에 하나 인천에 하나 경기도에 딱 세 개 있는데 제가 알기로 셋 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물로 나와있고요. 저는 타개책을 제조로 풀려고 나머지 업체들은 제가 보기에 답이 없습니다.



-스팀값이 올라가거나 아님 폐목재 처리시장이 활성화돼서 좀 낮아지거나. 근데 대기업이나 발전 자회사들에서는 수요가 폭증하는데 이 민간 사업자들이 이 수요를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그런 마이너스한 그런 상황이고요.

-SRF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SRF 사용시설이 다가 아닙니다. 참고로. 가용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위 창구는 이 외에도 여러개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렌드가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지방의 소각장들이 굉장히 애먹고 있습니다. 물량이 없습니다. SRF 사장님들 와계신 거 같은데 아마 저처럼 돈 많이 못 버실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EPR 부담금이 10만원 초반대인데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제조업체가 SRF 사용시설체에서 예전에는 돈을 받았던 적도 있고 줬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원가의 비율이 심한거예요. 그니까 이게 꾸준하지 않다 보니까 그 어떤 SRF 가격에 따라서 스팀값이 바뀌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SRF 제조시설 즉 폐비닐을 EPR 깎두기를 분쇄해서 납품하는 업체들 또한 시멘트가 섞여있는. 시멘트 회사가 지금 한 회 한 9만톤을 땡긴겁니다. 순환세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강원도에서 이걸 받아야 되나 아닌가 말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을 소화해주고 있는게 시멘트인데 그 시멘트가 유연탄을 대체해서 SRF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화해주다 보니 그 나비효과가 지금 여기 경기도 권역 등등 SRF사용시설에서 제조하고 사용할게 줄어드는 거죠.

- 이 게임에서 누가 잘못하느냐. 누구에게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매립,소각,해양 투기 뭐 아니라는거죠. 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정하고 사무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이 시국에 각 구 당 소각장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현실적으로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법적 기준과 제도가 지금 다 명쾌합니다.

-다이옥신 얘기하신거 같은데 TMS 실시간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저희 폐자원 센터에서 분기에 4번씩 검사하고 있고요. 폐목재 참고로 분쇄해서 성적을 내는데 만약에 이때 플라스틱 뚜껑 하나가 들어가서 염소가 튀잖아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에요. 제가 형사고발을 이걸로 6번을 당했어요. 또 이걸 뭐냐는 거죠. 서로 할 말 많습니다.

- 근데 일본이나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거 찬성입니다. 유럽에서 시멘트 업체에서 결국 유연탄을 100% 대체하여 아주 품질좋은 SRF 태워서 하는 것도

저는 아주 대찬성입니다. 갈길이 좀 있죠. 방향도 좀 명확하고. 그래 가지고 이걸 소위 정치적으로 사업장 내는 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 나가야하는데 이거 SRF의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넓게 펼쳐놓고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 ○ 김국진 전무(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SRF하고 처리인데 제가 뭐 그렇게 저도 30년동안 환경업을 하다가 이직해서 환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고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계신데 주제 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폐기물 관리법,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그 밖에도 뭐 국가 간의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도 많습니다. 복잡하고 폐기물 자체도 복잡합니다.

- 폐기물 성상이나 생활폐기물이나 저도 직접 처리도 해봤지만 너무 힘들게 그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ESG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런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아니면 직접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 의해 이 자리에서 좀 화합되고 좋은 설명들을 이해하면서 하는 그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경험한 SRF는 전 직장 건설에서는 보통 500억 이상 공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시설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송도 쪽의 SRF를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은 사실 돈되는 사업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사업이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환경사업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지 환경은 힘듭니다. 그때 SRF시설도 마이너스 적자 봤고요, 그때 직원들도 왜 SRF하는지 모르겠고 어차피 태울건데 그 분리해서 하려면 이제 품질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태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중의 일을 한다.

- 아까 법들이 여러개 나왔듯이 명분도 있고 좋은 법이지만,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런 듯하다. 김성길 사무국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그리고 박상원 대표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 저는 다른 것 보다 저는 경기 북부에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하고 지속적인 발전은 뭐냐 어떻게 보면 청정하고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

면 시설들이 여러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시설별로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좀 더 우선순위를 뒤서 시설별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서 그런 방안을 찾고 그 다음의 대책까지 생각해 보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 ○ 정연훈 대표(에코인사이트)

- 우리 패널분들께서 열띤 토론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폐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색도 제거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경기도 북부 염색업체의 색도제거를 위해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쓰고 있습니다. 강력한 살균력이 있는 처리수를 하천에 방류하여 유익균까지 사멸시키는 원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뭐 대체가 있지만 우리가 펜톤산화라고 하죠? 과산화수소와 2가 염화철을 가지고 펜톤산화를 하는데 시설이 없어서 도입을 못하고 있지만 이걸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도입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 환경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쉽게 속된말로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들을 다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그런 어려움을 공감하자라는게 아니고 저희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의 모습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인지를 하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숙명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의 특성이 뭐냐면, 정책과 과학, 기술들이 호흡이 되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하는데 융화가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통해서 성숙한 결과, 성과물로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 ○ 신동철 교수(대진대학교)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소각장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쓰레기를 버리면 소각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네 동네에 설치하면 좋니? 하면 싫다고 하고, 그렇다고 너네 쓰레기 안버릴거야? 하면 학생들이 할말이 없어요. 너네 졸업하고 취업 안할거야? 해도 아무말도 없습니다.

- 이런 SRF 시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소각장이랑 SRF 소각시설과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소각시설은 감량화 시설이고요. SRF소각시설은 재활용 시설입니다. 소각장에서 SRF소각시설은 같냐는 말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윤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준도 있고 업체에서 잘 지켜낸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유해성 논란이 일어날 일이 있을까요? 업체가 안지키니까 유해성 논란이 일어나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자체에서 감시가 소홀해서 일어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 기준을 강화하자는 말씀도 많지만 업체에서 잘 지켜주고 주민들이 믿으면 이런 논란이 다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 경제성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주민들이 유해성이 없다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과 기준이 어땡고가 아니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